

# 단식은 아무나 하나



###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침어낙안(沈魚落雁)은 미인(美人)을 형용(形容)하여 이르는 말이다. 어쩌나 미모가 뛰어났던지 물고기가 부끄러워 물속으로 몸을 감추고, 날던 기러기는 날갯짓을 잃은 채 그만 땅에 떨어진다라는 뜻이다. 폐월수화(閉月羞花)란 말도 있다. 달은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아름다운 꽃마저 가만히 있을 말을 받아들여 몸을 감출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모두 중국의 4대 미녀와 관련이 있다. 먼저 춘추시대 월(越)나라 미인으로, 오(吳)나라 패왕의 원인이 된 경국지색(傾國之色)의 주인공 서시(西施). 어느 날 강변에 앉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강물에 비치는데, 그 모습을 본 물속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고 천천히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침어(沈魚)라는 칭호를 그녀가 얻게 된 배경이다.

다음은 팔방미인이었으나 뇌물을 바치지 못해 추녀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주인공 왕소군(王昭君)이다. 한(漢)나라의 궁녀였던 그녀는 화친을 위해 북쪽 흉노 왕에게 보내진다. 이윽고 먼 타국 땅으로 시집가던 날, 그녀는 찢어지는 슬픔을 비파 연주로 달래는데, 그 미모와 아름다운 음색에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그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바로 낙안(落雁)의 고사(故事)다. (물론 중국의 장자(莊子)는 여인들이 아무리 예뻐 봤자 새들은 놀라 날아가고 물고기는 두려움으로 물속 깊은 곳에 숨는다 했지만.)

## 마지막 저항 수단이 어쩌다

조선(朝鮮)은 중국의 4대 미녀 중 유일한 가상 인물이다. 한(漢)나라 대신 왕윤(王允)의 수양딸로 삼국지에 나온다. 하루는 조선이 화원에서 달을 보고 있는데 구름 한 조각이 달을 가렸다. 그 모습을 본 왕윤은 "달도 내 딸에게는 비할 수가 없네. 달이 부끄러워 구름 사이로 숨어버렸구나"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조선은 폐월(閉月)이라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당(唐)나라 현종의 며느리

이자 후궁이었던 양귀비(楊貴妃)다. 풍만한 몸매의 절세미인인 그녀가 어느 날 화원을 거닐다 무의식중에 합수화를 건드리게 됐다. 그러자 양귀비의 아름다움에 그만 꽃도 부끄러워하며 잎을 말아 올렸다는 것이다. 그녀의 별명이 '수화'(羞花)가 된 사연이다.

이들 네 미녀 중 서시(西施)는 '효빈'의 고사로도 유명하다. 본받을 '효'에 쟁그릴 '빈'이니, 직역하면 '눈살 찌푸리는 것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서시는 아마도 속병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다 한다. 하지만 미녀는 어떤 표정을 지어도 예쁜 법. 게다가 쟁그리면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처녀들은 이걸 몰랐던 것일까. 어떤 추녀가 그걸 보고 자기도 쟁그리면 예쁘게 보일 것으로 생각해 항상 쟁그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래서 '효빈'은 자기 분수(分數)도 모르고 남의 흉내를 냄을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인다.

한데 그러한 월나라 추녀들의 모습을 나는 요즘 정치판에서도 심심찮게 확인하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필리버스터니 릴레이 단식이니 바로 생뚱맞이 짝이 없는 제1야당의 치열한 '반복재(?)' 투

쟁'이 그것이다. 필리버스터는 '해적선' '약탈자'라는 뜻의 스페인어 '필리부스터' (filibustero)에서 유래된 말이다. 의회 안에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국회법에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명시돼 있다.

필리버스터 하면 우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시행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1964년 당시 조선이었던 김대중 의원은 동료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무려 다섯 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발언했다. 당시 김 의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3000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분회의에 상정된 김 의원 구속동의안은 DJ의 연설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발언 시간이 길었음에도 내용이 논리 정연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바로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이다.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단식도 마찬가지다. 단식 하면 또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YS는 5·18민주화 운동 3주년인 1983년 5월 18일부터 6월 9

일까지 무려 23일 동안이나 단식을 벌였다. 그는 단식 시작 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5개 민주화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YS의 단식은 DJ가 연대의사를 밝히면서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의 계기가 됐다. DJ도 평민당 총재 시절이었던 1990년에 내각제 반대와 지방자치제 실현을 주장하며 13일간 단식한 적이 있다. 그의 단식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시행의 기폭제가 됐다.

## 제 분수 모른 채 흉내 내봐야

한국당도 올 1월 단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릴레이 단식'이라는 방식인데 여러 의원들이 나눠서 단식을 진행한 것이다. 말만 들으면 의원들이 며칠씩 나눠서 할 것 같지만, 몇 시간씩 나눠서 하는 방식이었다. 사소한 일(내가 보기에는)로 다섯 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을 벌였는데, 보도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끔 곡기(穀氣)를 끊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게나 고동'이나 모두 따라 하다 보니 울림이 없다. 독재에 대항

하는 마지막 저항 수단이었던 단식이 어쩌다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다.

두 정적 두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최근에도 정치인들의 단식이 있었다. 지금이 마치 군사독재 정권이라도 되는 듯이 단식을 감행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8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고, 이후 다른 몇몇 의원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다.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요, 겉기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하고 있구나' 하고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만 단식도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유훈을 따라잡기로서 '효빈 정치'라는 비웃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잡기는 남의 행동-유형-업적 따위를 따라 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아닌가.

이들의 잇단 단식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지금은 너무 이룰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명하는 것은 과거 두 대통령들의 단식처럼, 정치·사회적 변화를 이끌 만한 사건은 결코 될 수 없으리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서시를 따라 했던 월나라 추녀들처럼, 한낱 웃음거리로 두고두고 회자(膾炙)될지도 모르겠다.

# 10명 중 6명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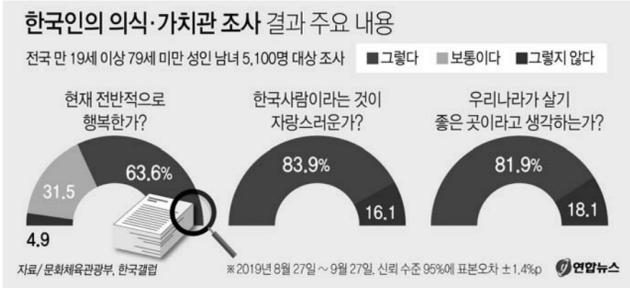
문체부,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진보·보수 갈등 크다' 응답 91.8%

우리 국민 60% 이상이 '현재 전반적으로 행복하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도 80%가 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보와 보수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90%를 웃돌아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를 통해 파악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행복하다'는 응답이 63.6%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중종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할 때가 있다'는 응답은 24.4%였으며 '중종 사소한 일에도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23.9%), '중종 소외감을 느낀다'(18.8%), '중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16.3%)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자리'(31.3%)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뒤이어 '저출산·고령화'(22.9%), '빈부격차'



(20.2%)로 조사됐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1.8%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6년 조사 때보다 14.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90.6%가 '심각하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가족을 제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결과에서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친구, 직장 동료) 등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8.8%, 이웃을 '신뢰한다'는 62.9%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은 여가보다는 '일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와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묻는 결과 여가보다는 '일에 더 중심'을 둔 경우가 48.4%였으며 '비슷하다'고 답한 비율은 34.6%, 일본과는 '여가에 더 중심'을 둔 경우가 17.1%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문체부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달간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상대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목포 경동성당' 문화재 등록

종교사·지역사적 보존 가치 높아...전북대 구 본관 등 건물 3동도

목포 원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인 '목포 경동성당'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은 종교사, 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목포 경동 성당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신안 섬 지역 선교를 위해 1954년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을 받아 건립된 경동 성당은 목포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이다. 목포 해안 항구 중심지역에 자리한 석조 건물로 웅장한 외관 형태가 특징적이다.

아울러 '전북대학교 구 본관', '전북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전북대학교 구 중앙도서관'도 문화재로 등록됐다. 전북대 건물 세 동은 1955~1957년 준공됐으며 대학 역사를 상징할 뿐 아니라 모더니즘 건축 특성이 남아 있다.

한편 백범 김구(1876~1949)가 일본 수뇌 암살을 위해 조직한 항일비밀단체 '한인애국단' 단원들이 쓴 편지와 이력서도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한인애국단 편지 및 봉투', '한인애국단원 이력서 및 봉투', '이교재



1954년 아일랜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으로 건립된 목포 경동 성당. (문화재청 제공)

위원장 및 상해 격발(撤發)', '문명박 추조 대한민국임시정부 관원 5건을 문화재로 (追悼) 및 문인만 특별(特發)', '대한민국 등록 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루동 도로점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임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발전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살·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운암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입 2억 참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외곽도로 농협 부근 6차선전 244㎡ 건물신축적합 13억2천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2억
- 농성동 상곡회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당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내차지 등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천변(광의면) 11050㎡ 대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출입 6억4천
- 파산중인 주택 금액 계림동 소방도점 땅 142㎡ 2층집 164㎡ 집 총금 1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요양병원] 부지매매

### 힐링센터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 한옥식당 임대

###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동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동 369-1625
	·운 천 376-7153	·히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